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Daily Hassles, Bullying and Victimization :
A Comparison of Grade and Gender

김 길 임*

Kim, Gill Im

심 희 옥**

Sim, Hee O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ditions of daily hassles and the relations between daily hassles, bullying, and victimization by grade and gender. Data were collected from 530 1st-6th grade children through questionnaires. The extent of stress, bullying, and victimization of children differed by grade and gender. Males reported higher parent-, study-, and friend-related stress than females. Bullying and victimization were highly related to each other. Most bullying appeared in 3rd-6th grade children while most victimization occurred in 1st-2nd grade children. Most bully/victims were in 5th-6th grade children. More females than males were not-involved and victimized. More males than females were bullies and bully/victims.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not-involved children experienced different degrees of daily hassles.

Key words :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 또래 괴롭힘 가해(bullying), 또래 괴롭힘 피해(victimization)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8월 20일

•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교사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가족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simh@kunsan.ac.kr

I. 서론

아동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자주 이상화되곤 하지만 Elkind(1981)는 현대의 아동을 쫓기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종과 기술 집약적인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가 많아지면서 성장하는 아동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자녀의 학업성취에 몰두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과잉 과외지도로 내몰아 아동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또한 과밀한 학교학급에서 아동의 개성은 무시되고 획일화된 학교환경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도가 부족해 교사 역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김명식, 1999).

아동은 출생 초기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발달단계별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달과업을 이루어 간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나 아동기에 이르면 부모 관계에 더해져 또래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아동이 부모와 형성하는 관계는 일차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이나 또래와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다. Piaget(1965)는 부모-자녀 관계가 권위와 일방적인 동조성에 의해 기존의 사회규칙을 습득하도록 아동을 사회화하는 것과 달리 또래관계는 상호성과 동등성에 의해 협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자율적인 도덕성 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또래관계가 부여하는 기능이 부모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래관계는 발달단계에 따라 그 시기에 중요한 발달적 관계를 극복하도록 상호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응을 돕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론적 근거 외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가족 형태의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 그리고 조기교육, 선행학습의 추세에 따라 아동은 과거보다 더 어린 연령부터 놀이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더 많은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아동의 일상생활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동은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듯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방과후 과외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실컷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아동은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도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와 장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최창호(1993)는 아동들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그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과 아동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기 스트레스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학동기 아동의 학년차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한다(Brown, Cowen, Hightower, & Lotyczewski, 1986; Yamamoto, 1979).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창호(1993)의 연구는 학교압력과 부모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아가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한다. 심희옥(1997, 1998)은 4-6학년 남아가 여아보다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아동의 하루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즐겁게 공부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좁은 공간과 각종 규제 속에 아동들의 감성을 가두어 버림으로써 학생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이런 불안과 좌절의 출구가 결국 특정한 혹은 특정 부류의 또래들을 가해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과 충동적 쾌감을 얻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심리적 불안감, 좌절과 분노로 일정한 집단이 형성되며 이 집단은 집단의 결속 강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누군가 괴롭힐 대상을 찾게 된다. 그밖에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가해자 일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박경숙, 손희권, 송희정, 1998).

이처럼 또래 괴롭힘이란 어떤 집단 안에서 특정한을 소외시킴으로서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또래 괴롭힘은 이러한 부정적 행동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강조되지만 단 한번의 심각한 괴롭힘도 특수 상황에서는 괴롭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Olweus, 1993). 최근 또래 간의 따돌림, 놀림, 소외시키기, 집단폭력 등 또래 괴롭힘의 빈도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여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심리적 상처가 등교거부, 학교 부적응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민,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배삼준(1996)의 조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46%가 괴롭힘 경험자라고 한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

역의 초·중·고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48.1%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하고, 30%의 청소년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이 괴롭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사실은 방관으로 가세한 아동들까지 고려한다면 아동들 사이의 괴롭힘은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적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Bagwell과 그의 동료들(1998)의 장기 종단적 연구와 아동기의 또래거부와 괴롭힘의 경험은 청년이나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 등과도 관계가 있어(Parker & Asher, 1987, 1993)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경각 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발생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집단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에게서 직접적인 괴롭힘이 많이 나타나고, 여학생에게서는 사회적인 고립이나 또래들로부터 고의적인 배척형태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괴롭힘이 많다고 한다(김용태, 박한샘, 1997; 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Smith, 1991; Whitney & Smith, 1993).

연구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집단 괴롭힘이 야기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입시위주와 통계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강조한다(구본용, 1997). 욕구좌절이 폭력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구창모, 1991; Barker, Dembo, & Lewin, 1941).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특성은 동료에 대한 공격성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종종 교사나 부모에 대해서도 공격적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보통 아동들보다 폭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또한 이들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정심이 거의 없다. 이들이 만약 남자라면 보통의 남학생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며, 특히 피해자보다는 더욱 강하다(Olweus, 1994). 또한 가해자들의 성격 특성은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다(Rigby, 1993).

스트레스 경험과 아동의 건강이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Natvig, Albrektsen과 Qvarnstrom(2001)의 지적처럼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행동 중 하나인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적다. 학령기 아동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아동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만 어떤 아동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환경에 또래를 괴롭히는 일 같은 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재미로 여럿이 한 친구를 가해하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에 “죽여 버려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다.

스트레스 경험과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강성희(1991)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 관한 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의 연구는 부모가 보고한 아동이 겪은 스트레스가 교사와 부모가 평가한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오명희(1994)의 초등학교 1학년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을 비교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아동일수록 교사에게 더 반항적이며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4, 6학년생의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그리고 미성숙 행동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Natvig, Albrektsen과 Qvarnstrom(2001)는 노르웨이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학교를 멀리하는 것(school alienation)과 걱정(school distress)을 상징하여 또래 괴롭힘과의 관련을 탐색했을 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 빈도가 높았고, 학교를 멀리하는 정도가 클수록 괴롭힘 행동의 위험이 증가하고, 학교걱정은 또래 괴롭힘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Taki(2001)는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아동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스트레스는 신체, 우울, 공격, 무감각 스트레스 차원이었다.

1997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과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집단 괴롭힘 현상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과 또래 괴롭힘이 학령기 전체를 통해 학년과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해 또래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어 또래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학령기 전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과 또래 괴롭힘 경

험정도를 밝히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경험과의 관련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6년간이 스트레스 대처능력, 자기 중심성, 사회적 기술차원에서 변화의 여지가 많아 학령기 전체를 하나나 둘로 나누기보다는 6년이라는 장기간의 아동의 발달을 세분하여 탐색하고자 학령기를 2개 학년씩 한 단위로 묶어 이를 학년 1, 학년 2, 학년 3으

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은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2)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는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3)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 도시인 K시내의 B초등학교 전교생으로, 한 학년에 3학급씩(1학급 30여명) 총 18학급의 546명이었다.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530명의 응답을 최종 자료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학년별로 발달상황을 탐색하기 위하여 1, 2학년을 학년 1로, 3, 4학년은 학년 2로, 5, 6학년은 학년 3으로 상정하였고, 학년 1은 170명으로 평균 나이는 7.41세, 학년 2는 172명으로 평균 나이는 9.40세, 학년 3은 188명으로 평균 나이는 11.31세였다.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는 서로 관련이 있어, 즉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형태를 가해, 피해, 가해/피해, 비관여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Austin과 Joseph(1996)의 방식과 유사하게 가해, 피해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가해집단은 가해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피해점수는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피해집단은 피해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가해점수는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가해/피해 집단은 가해와 피해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아동으로, 비관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30)

변 인	내 용	대상자*	백분율 (%)
성	남	272	51.3
	여	258	48.7
부모유형	양친모두 계신다	500	95.1
	편부 또는 편모이시다	18	3.4
	두분 중 한분이 계부나 계모	4	.8
	기타	4	.8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4	.9
	중학교 졸업	16	3.7
	고등학교 졸업	167	38.6
	전문대 졸업 · 대학중퇴	14	3.2
	대학교 졸업	190	43.8
	대학원 졸업 이상	42	9.7
어머니 직업	무직	206	42.0
	단순노무직	27	5.5
	피고용 기능공	51	10.4
	자영 상공업	122	24.9
	사무직	72	14.7
	관리직 전문직	5 7	1.0 1.4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졸업	4	.9
	중학교 졸업	6	1.3
	고등학교 졸업	130	29.1
	전문대 졸업 · 대학중퇴	18	4.0
	대학교 졸업	226	50.6
	대학원 졸업 이상	63	14.1
아버지 직업	무직	7	1.4
	단순노무직	16	3.3
	피고용 기능공	96	19.7
	자영 상공업	185	37.9
	사무직	140	28.7
	관리직 전문직	15 29	3.2 5.9

*대상자 수가 530명이 되지 않은 항목은 무응답 때 문임.

여 집단은 가해와 피해점수가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 중 또래 괴롭힘 가해 아동은 120명(22.6%), 피해 아동은 58명(10.9%), 가해/피해 아동은 160명(30.2%), 비관여 아동은 192명(36.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만든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부모, 학업, 교사, 친구 관련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20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부모님이 내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셔서...”이고,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8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이고,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3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선생님이 몇몇 아이만 좋아하셔서...”이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소외감과 위협감을 묻는 17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이다. 순서대로의 Cronbach α 는 .90, .83, .81, .90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긴장과 괴로움정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또래 괴롭힘 가해

또래 괴롭힘 가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Austin과 Joseph(1996)의 가해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3개의 보충문항을 포함해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이 지각하는 가해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이다.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3)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Neary와 Joseph(1994)의 피해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3개의 보충문항을 포함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피해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한다”이다. Cronbach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학급 단위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행했고, 예비 조사는 1-6학년 18학급 중 학년 주임반의 학업성취 상위 아동 3명, 하위아동 3명씩 총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참고로 아동의 이해와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는 친구관계망의 완성단계인 한 학년이 거의 끝나는 시기에 3명의 도우미 교사로 하여금 1개 학년씩 실시하도록 하였다. 담임교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여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1, 2학년 아동들은 도우미 교사가 문항을 읽어주고 설명하여 설문 의 이해를 도왔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은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고, 또래 괴롭힘의 경험정도에 학

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으며,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경험정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과 성을 통제한 가운데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은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에서 학년 1, 2, 3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학년별 변량분석

변 인	학년	M(SD)	F	Duncan
부모관련 스트레스	1	31.51(11.40)	.95 NS	
	2	31.14(10.26)		
	3	32.56(8.82)		
학업관련 스트레스	1	12.21(4.92)	12.63 p<.0001	a
	2	13.86(5.44)		b
	3	14.94(5.07)		c
교사관련 스트레스	1	3.76(1.53)	10.27 p<.0001	a
	2	4.51(2.33)		b
	3	4.81(2.63)		b
친구관련 스트레스	1	26.43(9.54)	2.55 p<.10	a
	2	25.60(9.25)		a b
	3	24.37(7.19)		b

<표 2>에 의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학년 1, 2, 3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Duncan Multiple-range test에 의하면 학년 3인 5,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학년 1

인 1, 2학년 아동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학년 1인 1, 2학년에 비해 학년 2와 학년 3인 3-6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학년 1과 학년 3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학년 1인 1, 2학년 아동이 학년 3인 5, 6학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p<.10).

연구문제 1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성별 t-검증

변 인	성	M(SD)	t
부모관련 스트레스	여아	30.20(9.19)	-3.49 p<.001
	남아	33.24(10.83)	
학업관련 스트레스	여아	13.22(5.05)	-2.11 p<.05
	남아	14.18(5.41)	
교사관련 스트레스	여아	4.31(2.32)	-.59 NS
	남아	4.43(2.21)	
친구관련 스트레스	여아	24.60(7.95)	-2.15 p<.05
	남아	26.21(9.31)	

<표 3>에 의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22)=-3.49,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28)=-2.11, p<.05$. 교사관련 스트레스의 경우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스트레스 역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22)=-2.15, p<.05$.

학년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가 유의한 경우를 보면, 학년 1인 1, 2학년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만 남아가 높았다 $t(153)=-1.95, p<.05$. 학년 2인 3, 4학년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 남아가 높은 경향이 있고 $t(170)=-1.68, p<.10$, 학업관련 $t(157)=-2.51, p<.01$ 과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 남아가 높았다 $t(154)=-2.35, p<.05$. 학년 3인 5, 6학년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만 남아가 높았다 $t(186)=-2.33, p<.05$.

2.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는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또래 괴롭힘의 경험정도는 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남아와 여아가 경험한 가해와 피해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학년별 결과를 보면, 또래 괴롭힘 가해는 학년 2인 3, 4학년 아동이 4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년 3인 5, 6학년 아동이 41.7%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피해의 경우는 학년 1인 1, 2학년 아동이 58.6%로 가장 많았다.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는 학년 3인 5, 6학년 아동이 43.8%로 가장 많았다. 비관여는 학년 1인 1, 2학년 아동이 41.7%로 가장 많았다.

또래 괴롭힘 집단별 결과에 의하면 학년 1인 1, 2학년 아동은 비관여집단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2인 3, 4학년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30.2%로 똑 같이 많았다. 학년 3인 5, 6학년 아동은 가해/피해집단이 37.2%로 가장 많았다.

<표 4>의 성별 결과를 보면, 또래 괴롭힘 가해는 남아가(58.3%) 높고, 피해는 여아가(60.3%) 높으며, 가해/피해는 남아가 높고(61.9%), 비관여집단은 여아가 높았다(58.3%). 또한 또래 괴롭힘 집단별 결과에 의하면 여아는 비관여집단이 가장 많고(43.4%), 남아는 가해/피해(36.4

<표 4> 또래 괴롭힘 집단과 학년과 성별에 대한 χ^2 검증

집 단		가해		피해		가해/피해		비관여		χ^2
학 년	1	18		34		38		80		
		15.0*	10.6**	58.6	20.0	23.8	22.4	41.7	47.1	
	2	52		17		52		51		53.31
		43.3	30.2	29.3	9.9	32.5	30.2	26.6	29.7	p<.0001
	3	50		7		70		61		
		41.7	26.6	12.1	3.7	43.8	37.2	31.8	32.4	
전 체		120		58		160		192		530
성	여아	50		35		61		112		
		41.7	19.4	60.3	13.6	38.1	23.6	58.3	43.4	19.82
	남아	70		23		99		80		p<.0001
		58.3	25.7	39.7	8.5	61.9	36.4	41.7	29.4	

*학년과 성별 % **또래 괴롭힘 집단별 %

%) 집단이 가장 많았다.

3.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경험 정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학년과 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경험 정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내는데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집단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비관여집단이 가장 낮았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역시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또래 괴롭힘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높고, 비관여집단이 가장 낮았다.

<표 5>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또래 괴롭힘 집단별 공변량분석

변 인	또래 괴롭힘 집단	조정된 M	F*	조정된 M간의 집단차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해	31.95	p<.0001	a
	피해	31.35		a
	가해/피해	35.53		b
	비관여	28.63		c
학업관련 스트레스	가해	13.51	p<.001	a
	피해	13.88		b
	가해/피해	14.99		b
	비관여	12.73		a
교사관련 스트레스	가해	4.58	NS	
	피해	4.33		
	가해/피해	4.54		
	비관여	4.12		
친구관련 스트레스	가해	24.44	p<.0001	a
	피해	27.87		b
	가해/피해	29.69		b
	비관여	21.76		c

*학년과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또래 괴롭힘 집단의 F값

IV. 요약 및 논의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은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학년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기대, 관심과 요구 등이 아동이 어리다고 해서 더 많거나 크다고 해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 관심과 요구 등이 학령기 전체를 통해 차이가 없어 아동이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학년에 상관없이 동일함을 말해준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5, 6학년 아동이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 4학년 그리고 1, 2학년 순이었는데 이는 5, 6학년 시기에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요구가 많아져 다수의 과외수업, 다량의 학습지, 성적에 대한 불안감, 학교 성적순으로 평가받게 되는 배치고사 같은 것의 영향일 수 있겠다. 즉 고학년 아동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학업성취를 위한 학원수강이나 과외수업 등에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은 학습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된다는 Elkind(1981)의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3-6학년이 1, 2학년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 2학년 시기에는 교사의 배려와 친절이 있고 교육과정이 놀이중심이고 관찰과 탐구, 흥미중심으로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아동의 인지력이 미숙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저학년에서는 적을 수 있겠다. 또한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사의 각종 평가와 요구가 고학년 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1, 2학년이 5, 6학년보다 높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친구와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미숙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쉽고 친구를 이해하거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더 깊이 지각하는 듯 하다.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에 대한 성차를 보면 남아가 부모, 학업,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창호(1993)의 연구에서 부모와 학교압력에 따른 스트레스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남아는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를 더욱 스트레스로 지각하는데 학년별로 스트레스 영역별 성차를 보면 1, 2학년과 5, 6학년 시기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 남아가 높고, 3, 4학년 시기는 부모, 학업, 친구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 역시 남아가 높아 학년별로 나누어 성차를 보아도 남아가 여전히 여아보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우리 나라 부모들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딸보다는 아들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잔재하고, 현 사회조류에서

학력 제일주의가 팽배해 아들에게 더 많은 교육투자를 하고 간섭도 많이 하게 되어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할 수 있겠다. 친구관계에서 남아는 친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고 또한 여아보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어서 또래들과 놀이, 게임이나 운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때 직간접적으로 함께 놀지 못하게 하거나 할 때 스트레스와 피해의식이 더 클 수 있겠다.

연구문제 (2)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는 학년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또래 괴롭힘의 집단에 대한 학년별 분석에서 3-6학년 시기에 가해를 많이 하고 피해경험은 1, 2학년 시기에 많으며, 가해/피해는 5, 6학년 시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또래관계에서 피해 지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린 아동이 집단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더 높은 탓이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상황에 적합한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는 등 또래 갈등에서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일 것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경향이 높는데 즉 아동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피해만 당하고 있지 않고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가해도 점점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간의 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를 당하던 아동이 대응공격을 하다보니 가해아동으로 변할 수 있어 부적절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이런 과정에 대한 것과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래 괴롭힘의 집단에 대한 아동의 성차를 보면, 남학생이 가해와 가해/피해가 많고 여학생은 피해가 많았다. 이는 Whitney와 Smith (1993)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많

이 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친구관계보다 더 거칠고 공격적이어서 가해가 많고, 또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으로 스스로를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배려, 동정심이 부족해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더 연루되기 쉽고 또한 남아가 대응공격을 여아보다 더 많이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여아는 남아처럼 또래의 괴롭힘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보다는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더욱 강하게 지각하는 듯 하다.

연구문제 (3) 영역별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학년과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 괴롭힘 집단별로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먼저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높았고, 비관여집단이 가장 낮았다.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많을수록 아동은 이를 더 스트레스로 지각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의 출구는 가해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Natvig, Albrektsen과 Qvarnstrom(2001)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빈도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오명희(1994)의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아동일수록 또래에게 더 공격적이라는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도 가해/피해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또래 괴롭힘 집단별로 차이가 없으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또래 괴롭힘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높았고 비관여집단이 가장 낮았다. 즉 이는 부적절한 또래관계와 스트레스는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가해도 높고 피해도 높은 집단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트

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은 아동이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아동이 내몰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동은 어떤 때는 공격적이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져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미흡해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깊이 연루되어 어린 시절만의 고유한 즐거움이나 자신감, 행복감을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행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적절한 또래관계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는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먼저 학령기 아동은 학년과 성별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함을 보여준다. 학업과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고학년 시기에 많이 경험하고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저학년 시기에 많이 경험한다. 남아가 여아보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한다.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은 학년과 성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피해집단이 1, 2학년 시기에 많은 반면 가해집단은 3-6학년 시기의 아동들에게 많다. 여아는 피해집단이 많고 남아는 가해/피해집단이 많다. 이는 학년과 성별로 서로 다른 환경을 제공해 이들의 적응을 도와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모나 학업,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더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학부모, 교사, 학교당국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유의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스트레스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표출하도록 하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아동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보고를 아동의 지각만으로 한정했는데 부모나 교사, 친구의 지각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면접법 및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가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계를 상정하고 있

으나 이 관계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경험을 동시에 고려하고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경험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또래 괴롭힘 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탐색을 위한 종단연구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어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사회계몽, 생활지도 계획 및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용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본용(1997). 청소년 집단의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청년대화의 광장.
- 구창모(1991). 청소년 문제론. 청소년개발원.
- 김명식(1999,7). 일본학교의 이지메 대응방안.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청소년대화의 광장.
- 민하영·유안진(1998). 학령기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경숙·손희권·송희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배삼준(1996). 어린 왕따 민순이. 서울:우리교육.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 오명희(1994).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적 사건과 문제 행동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

- 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agwell, C. L., Newcomb, A. F., & Bud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ker, R. G., Dembo, T., & Lewin, D. (1941). Frustration and aggression : An experiment with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ild Welfare*, 18(1), 1-314.
- Bjorkqvist, K., Lagerspetz, K.,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 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rown, L. J. P., Cowen, E. L., Hightower, A. D., & Lotyczewski, B. S. (1986).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judging and experiencing specific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 339-346.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ren :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New York : Addison-Wesley.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61-575.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183-186.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 Free Press.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4), 501-513.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Taki, M. (2001).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alia. *Japanese Society*, 5, 118-132.
- Whitney, I., & Smith, P. K. (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1), 3-25.
- Yamamoto, K. (1979). Children's rating of the stressfulness of exper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81-582.